

“천수경’ 빛이 마음 잡아주길” ‘대행 큰스님 우리말천수경’ 임효 화백 그림전



12월 17일 전북대 삼성문화관에서 열린 ‘대행 큰스님 우리말 천수경’ 임효 화백 그림전 개막식에는 3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한마음선원 대행 큰스님의 <뜻으로 쓴 우리말 천수경>을 등암화에 담은 임효 화백의 ‘만 가지 꽃이 피고, 만 가지 열매 익어’ 전주 전시회가 12월 17일 전북대 삼성문화관에서 개최됐다.

전시회 개막행사는 도영(원주 송광사)·혜원(한마음선원 안양 본원 주지)·혜월(광주지원장)·혜광(목포지원장)·혜안(울산지원장)·혜능(공주지원장)·청고(국제문화원)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도영 스님은 축사에서 “대행 스님의 큰 뜻이 담긴 작품을 전주지역에서 접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많은 불자들이 진리가 담긴 작품을 만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효 화백은 “그림을 그리기 전에는 <뜻으로 쓴 우리말 천수경> 독경을 들으며 우선 녹자 한잔을 내어놓는다. 명상으로 내 마음에 들어있던 일상의 기운을 갈무리한 연후에 먹을 갈고 물감을 준비한다”며 “그 순간에는 너무나 순결하고 정갈한 마음 자리가 돼 있었다”고 말했다. 임 화

백은 “그림 그리는 순간순간에는 랩(rap)식으로 편곡한 심경(心經)을 들으며 기운을 업그레이드 시켰다”며 “불자들이 가장 많이 독송하는 <천수경>의 밝은 빛이 현대인들의 마음 속에 기운점이 돼 복극성 같은 길잡이로 마음의 방향을 잡아 주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번 전시에서 임효 화백은 다종이틀 띄우는 콩담작업을 거쳐 직접 만든 수제 한지 위에 석채를 섞은 수묵 석채화 작품 50여 점을 선보이고 있다. 전시작들은 ‘다시 온 부처님’ ‘명상’ ‘귀의’ ‘무아’ ‘깨달음의 미소’ 등 임 화백의 표현대로 경전의 뜻을 살리되 생각을 유추할 수 있는 그림으로 구성돼 누구나 즐길 수 있다.

이에 앞서 서울·부산 전시회를 통해 불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던 전시회는 전주에서 26일을 끝으로 회향한다.

한편 전시회 도록 판매대금은 전 달될 예정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금산사 동안거 포살법회 김제 금산사(주지 원행)는 12월 17일 대적광전에서 무자년 동안거 포살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포살법회는 선원에서 안거 중인 대중을 제외한 79명의 스님이 동참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무등산 울린 종교화합 캐럴”

‘무등산풍경소리’ · 원각사 성탄 축하 음악회

‘예수님오신날’을 맞아 사찰에서 캐럴이 울려 퍼져 눈길을 끈다. 생명과 환경을 생각하는 종교인 모임 ‘무등산풍경소리’ (이사장 지장·중심사 주지)는 12월 20일 광주 시 공동 원불교교당에서 크리스마스 음악회를 개최했다.

2002년 7월부터 시작해 올해로 68회를 맞는 이번 음악회는 최명진 목사(미래로 가는 교회) 사회로 노래와 춤 공연, 이야기 마당으로 꾸며졌다. 특히 이날 행사는 특별공연으로 원불교 광주교당 합창단과 중심사 합창단의 성탄 캐럴과 화합의 노래가 울려 퍼졌다.

캐럴과 함께 종교인 화합 마당도 펼쳐졌다. 지장 스님을 비롯해 김현교구장(원불교 광주·전남교구)과 전영주임신부(광주 북동성당)가 성탄 축하메시지를 전달했다.

무등산풍경소리 관계자는 “성탄 축하를 위해 교회나 성당에서 음악회를 열고 스님, 교무님이 축하 메시지를 전달하는 아름다운 모습은 무등산풍경소리가 아니면 쉽게 보지 못하는 광경”이라고 말했다. 무등산



지난해 원각사 ‘하나되는 음악회’에서 어린이 합창단이 찬불가와 캐럴을 부르는 모습.

풍경소리는 부처님오신날이면 목사님, 신부님이 대웅전 앞마당에서 축하인사를 건네는 등 종교를 초월한 생명존중과 화합의 정신을 보여왔다.

광주 원각사(주지 도제)도 12월 24일 예수님오신날 전야제를 맞아 독거어르신 도시락지원 후원 기금 마련을 위한 ‘하나되는 음악회’와 ‘열린 바자회’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원각사 어린이 합창단의 즐거운 캐럴을 비롯해 원불교합

창단, 진도복 공연, 불자가수 주권기, 피아노와 트럼펫 앙상블, 이용호와 리컴미디어의 팝송과 겨울노래 등이 따뜻한 겨울을 선사할 예정이다.

원각사 윤호준 사무국장은 “이웃 종교인은 물론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더욱 뜻 깊은 사업을 펼칠 것을 다짐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불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동지나눔 ‘훈훈’ 화염사·심향사·무각사

어르신들을 위한 동지나눔 동지죽 나눔행사를 같은 날 무각사 내 사랑채에서 실시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자비나눔의 날’ 자비신행회 시상식

자비신행회(이사장 이화영)는 12월 17일 자비신행회 대강당에서 ‘2008 아름다운 자비나눔의 날’을 열어 아름다운 마당을 개최했다.

지역 자원봉사자와 회원들이 참석한 행사에는 자비나눔 대상 시상과 자원봉사 인증 배지를 수여해 눈길을 끌었다.

자원봉사자 중 1000시간 이상 활동한 김정분, 박춘전 회원에게는 광주광역시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으로 사회봉사활동인증에서 수여한 골드배지가 수여됐다. 또한 500시간 이상 참여자 박윤희 외 공동우승자로 12월 21일 나주 중앙로에서 진행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전북 신행단체 신년도약 다짐

전북지역 신행단체들이 잇따라 불자의 밤 행사를 열고 신년 도약을 다짐했다.

전북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박준배)는 12월 12일 전주 아름다운 컨벤션센터에서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월주 스님(금산사 회주)을 비롯한 금산사 분말사 스님, 송하진 전주시장, 전라북도청연우회 등 500여 공무원 불자들은 지역발전과 화합을 위해 모범적으로 신행 활동할 것을 다짐했다.

익산불교사암련(회장 지광)과 익산불교신도련(회장 박중근)도 13일 익산 원광대 강당에서 700여 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익산불교인 한마당 송년법회를 봉행했다.

전북불교대학(학장 한광수)도 13일 ‘전북불교대학인의 밤’을 개최하고 학교와 전북불교발전을 기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미륵사지 복원·익산불교회관 건립 발원

익산불교를 건립하는 데에는 박중근 회장의 의지와 열정이 있어 가능했다.

익산불교신도회는 우연한 계기로 창립했다.

몇해 전 전북 익산지역 스님들과 포교사단, 마한거사림, 대원회 등 신행단체들과 불자들이 백혈병으로 고통 받는 청소년을 돕기 위한 활동을 전개한 것이 계기였다. 익산지역에도 신도들이 마음을 모아 지속적인 봉사과 신행활동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한 것.

초대회장을 맡은 박회장은 척박한 지역불교 실정을 감안해 봉사활동과 포교활동에 중점을 뒀다. 불자들의 정성을 모아 선천성 기형과 성장장애로 성년이 될 때까지 18번 수술을 받아야 하는 어린이의 치료비를 지속적으로 모금해 전달했다. 독거노인들에게 생활비도 후원했다.

뿐만 아니라 뇌수술 후 고통 받는 환우들을 지속적으로 후원해 왔다.

1회성 후원이 아닌 정기적인 후원이 수혜자들에게 직접적 도

“익산불자 자비 신행 구심점 돼”

우리지역 부부나혼자 익산불교신도연합회 박중근 회장

익산시 팔봉공단 초입에 자리 잡은 경원상사. 연간 500만불 수출실적을 올리고 있는 중견기업이 익산불교신도회 박중근 회장(사진)이 운영하는 회사이다.

지난 수 십년 전 무주 설천의 관음사 오르는 길 작은 소년이 어머니로 보이는 보살보다 앞서 달려가며 산길을 울렸다. 이 작은 소년이 현재 익산불교를 이끄는 박중근 회장이다.

창립한 지 불과 4년만에 익산불교신도연합회가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며

움이 된다고 생각한 박중근 회장은 많은 사람은 아니더라도 정기적인 후원을 이어왔다.

지난 겨울 그동안 후원하던 어르신은 추운 겨울 냉방에서 지내다가 돌아가셨다는 비보를 듣고 박회장은 충격을 받았다. 박중근 회장의 충격은 실천으로 이어졌다. 지역 사암 스님, 신행단체들과 함께 독거노인들에게 1만 800장 ‘자비의 연탄’을 전달한 그는 지역민들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기도 했다.

매년 타종교



미륵사지 복원·익산불교회관 건립 발원

를바구니에서 소외된 불자들을 위로하고 지역불교 발전을 다짐하는 익산 불자 한마당을 개최한 박회장은 익산불자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속적인 후원과 봉사활동을 위한 기금 적립 필요성을 절감한 박중근 회장은 자신의 고향농지를 선포 무상임대해 여기서 얻는 수익금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지속적인 후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했다.

매일 출근 후 <천수경> 독송으로 하루 업무를 시작한다는 박회장은 “대표로 있는 기업이 연간 500만불 수출 실적을 올리는 것도 모두 불보살 기피”라며 “내년에는 익산시와 함께 익산시민의 숙원인 미륵사지 복원사업의 토대 마련은 물론 지역 불자들과 신행단체들이 수행·정진할 익산불교회관을 건립하겠다”고 말했다.

박중근 회장은 오늘도 옛 백제 불교의 영광을 재현하기를 발원하며 열심히 정진 중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빙의 퇴마 최면을 전수합니다

빙의 치유

- 영을 직접 불러 누구인지? 무슨 원인인지? 소원이 무엇인지? 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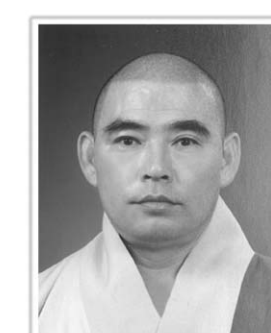
전생체험

- 원통한 인간의 인과 응보와 원인을 찾아 업장을 소멸하고 사업자 상업자에게 사업성취를, 기도자는 기도성취를, 원인모를 악질증상 등을 좋은 운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치유가능한 증상들

- 빙의(귀신병), 퇴마, 우울증, 공황장애, 대인공포, 불안공포, 불면증, 만성두통, 게임중독, 약물중독, 급한성격, 집중력, 성적향상 등등
- 빙의, 퇴마, 최면을 배우실분
- 자기최면, 타인최면을 배우실분
- 자녀들의 성적향상을 위한 부모님
- 포교활동에 꼭 필요하신분(성직자 특별우대, 종교불문)

- 전수를 받고자 하는 분들은 대체의학, 최면, 빙의, 퇴마 등을 한곳에서 전수가능하며 전수 후에 각 시도 지사도 가능함.
- 최단기간 실전교육
- 최면시술 누구나 가능합니다.
- 어디 아프세요. 불치병 동방 상담하세요.
- 하는 일마다 안풀리세요. 당신의 사주를 바꾸세요
- 빙의(귀신병) 퇴마, 최면? 100% 전수 - 치유
- 우울증, 공황장애, 산소수맥
- 비염, 발기부전 특효



한국 빙의 퇴마 최면 연합회 본부 **지 장 사 현오** 합장

HTTP://WWW.JIJANGSA24.ORG

서울지사 :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251번지 연세빌딩 후문앞 지장사

☎ 02)796-7579 / H·P 010-3056-3315

●서울교육 : 목, 금, 토, 일 (숙식가능)

부산지사 :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1388-8 (부산 지하철 2호선 화명역 2번출구 전자랜드 후문 앞)

☎ 051)364-5586 / H·P 010-3056-3315

●부산교육 : 연중무휴